단편소설

시작점, 0

정보고

그림=최재영

▲64년 진도 출생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10차례의 개인전, 한·중 수묵예술 교류전, 광주·대만 교류 '투영전' 등 참가 ▲전업작가로 활동

여자의 등 뒤로 달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여자는 닫힌 문에 등을 가만히 기댄 채 섰다. 문 앞을 밝혀주던 불빛이 스르르 꺼졌다. 물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인공센서 전등이다. 전등은 인식했던 물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전등은 화들짝 놀란 듯이 다시 불빛을 내뿜었다.

여자는 아파트 1층 출입문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일부러 쏟아 붓는 것처럼 내리는 굵은 빗발이 여자를 가로막고 있었다. '루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태풍이 몰고 온 어기찬 빗줄기였다. 태풍은 남부지방의 비닐하우스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산을 무너뜨려 인가를 덮쳤다. 태풍의 이름이 여성인 것은 사나운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자는 '루사'가 상처받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두 잔의 커피 때문이었을까. 여자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다.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지 못한 바람이 우- 짐승의 소리를 냈다. 길을 잘못 든 바람이 지그재그로 늘어선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몸을 일으켰다.

여자가 싱크대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물을 머금고 알약을 입에 넣으려다말고 여자는 알약을 다시 통에 넣었다. 꿀꺽 여자가 물을 삼켰다. 슬픔 같은 것이 목젖을 타고 가슴 한복판을 지나서 아랫배 깊숙이 고이는 느낌이었다. 순간 여자의 아랫배가 팽팽히 당겼다. 여자는 약통을 서랍에 넣었다.

닫힌 방 문 사이로 남편이 코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자가 안방 문을 살며시 밀고 들어가 외출복과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옷을 갈아입는 여자의 손이 퍼붓는 비 때문에 잠시 멈칫했다. 여자는 이내 옷을 입고 핸드폰과 키를 챙겨서 현관문을 나섰다.

두 잔의 커피 때문이었을까
여자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바람이 우– 짐승의 소리를 냈다

우산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을 잠깐 후회하다가 여자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여자가 전용으로 차를 세워두다시피 하는 장소에 여자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세웠더라……. 여자는 차를 주차한 곳이 생각나지 않아서 빗속에 망연히 서 버렸다. 양 미간을 좁히며 마지막으로 차를 탔던 시간을 되짚으려 애를 썼다. 요즘엔 하루 전의 일도 까마득하게 여겨졌다. 오늘과 어제의 거리가 까마득한 유년의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여자는 주차장의 차들을 눈으로 훑어보며 걷다가 어느 순간 아, 하는 탄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섰다. 여자의 차는 그 곳에 있지 않았다.

"8주째니다."

50대 초반의 원장이 차트를 뒤적거리며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의 나이 서른아홉, 출산경험 1회'라는 차트기록을 들여다보며 원장은 여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워 주세요. 엊저녁부터 굶었어요."

또 한 장, 삶의 갈피를 넘기면서 여자는 흔적을 지우고자 했다.

원장은 안경 너머로 잠시 여자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그럼 우선 수술실로 올라가 계세요."

원장은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수술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여자가 수술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웠다. 간호사가 손바닥 만 한 수액주머니를 가져와 베드 머리맡에 있는 T자형 폴대에 걸었다.

투명하게 떨어지는 수액을 보면서 여자는 얼마 전에 했던 '오라소마 테스트'를 떠올렸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색깔입니다. 개량한복을 입은 오라소마 프랙티셔너는 여자가 고른 병을 가르키며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바틀은 눈물을 뜻하는 겁니다. 바틀 색깔이 투명하지요? 요즈음 눈물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이제 눈물의 시기가 가고 환희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바틀이 오렌지 색 이잖아요. 단, 당신이 현재를 충실히 살았을 때만이 환희의 시기가 옵니다. 그 때 여자는 많이 운 것 같다. 여자가 여태껏 밖으로 흘려보낸 눈물들이 수액이 되어 다시 여자의 몸을 채우는 것만 같았다.

조금 뒤 원장이 수술 가운을 입고 여자가 누워 있는 베드 옆에 섰다.

"마취주사예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여자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여자의 아랫배가 팽팽히 당겨왔다. 여자가가 베드로부터 튕겨지듯이 일어났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래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사기를 들고 움찔 뒤로 물러서던 원장이 잔뜩 인상을 썼다. 원장이 수술실에서 나가자 간호사가 여자의 손에서 주사바늘을 빼내고 걸려있던 수액 주머니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들며 말했다.

"아줌마, 수술이 애들 장난인줄 아세요?"

병원의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여자는 시외곽을 향해 차를 몰았다. 종일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의 지열로 인해 열린 차창 안으로 더운 바람이 들어왔다. 일부러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여자는 더위를 견뎠다. 여자는 카 오디오에 CD를 넣고 볼륨을 한껏 높였다.

잔광이 남아있는 하늘빛이 쓸쓸했다. 이렇게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면 여자는 동생과 함께 토방에 걸터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일곱 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여동생은 빠- 빠- 하면서 두 손으로 배를 문질렀다. 배가 고프다는 표시였다. 함부로 쏟아져버린 붉은 빛들이 어둠에 지워질 때쯤이면 엄마는 급하게 대문이 밀고 들어왔다.

"아이고 어쩌끄나 내 새끼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와 여자와 동생을 품에 안는 어머니의 몸에서 진한 박하분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어둠이 마당을 넘어서 툇마루까지 올라와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가 칭얼거리는 여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여동생이 벽에 걸린 어머니의 월남치마 자락을 붙잡고 울먹거리다가 기어코 큰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여동생의 울음소리에 컹컹 어둠이 울렸다. 여자가 동생을 안았다. 동생이 울다가 지쳐서 여자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여자는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대문을 밀고 들어올 것 같아 온 신경을 마당 너머에 기울였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는 동생의 손을 잡고 서당골 큰집으로 갔다.

어둠이 하늘과 산의 경계를 지워서 시커먼 하나의 덩어리가 될 때까지 여자는 무작정 차를 몰다가 U턴을 했다. 시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퇴근해서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는 정체가 심했다.

여자가 사는 아파트촌으로 건너가기 위한 교량은 정체가 더욱 심했다. 교량 아래 천변에는 저녁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여자의 집에서 산책하기 맞춤한 거리인지라 여자가 종종 산책을 나오는 곳이었다. 여자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지만 신호가 떨어지자 좌측 깜빡이를 켜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

여자의 차가 하상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물길을 따라 우레탄을 깐 산책로에 들어선 여자는 즐겨 걸었던 하천의 상류를 향했다. 걷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매번 산책을 할 때마다 홀린 듯이 한없이 걷곤 했다. 걷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돌아가야 하는 까마득한 거리 때문에 여자는 참담한 심정이 되곤 했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하천 양쪽의 6차선 도로는 마지막 교각이 있는 지점에서 끝나고 하천 양옆으로 둑길이 이어졌다. '시작점 0'이라는 흰 글씨가 둑길에 버티고 선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쳤다. 우레탄 길도 끝이었다.

'0' 너머의 길은 잡풀과 갈대밭 사이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화한 하천의 하류를 향해 산책을 하기 때문에 하천의 상류 쪽인 출발점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여자는 그만 돌아갈까 하다가 갈대밭 사이 길로 접어들었다. 그때였다. 천 건너편 갈대숲으로부터 굵은 톤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발성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여자가 귀를 기울였다. 아무리 들어도 발성연습은 아니었다. 고통에 찬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무성한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울부짖는 남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누구에게나 저렇게 울부짖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것이었다. 여자는 남편을 떠올렸다. 좀처럼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남편도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저렇게 울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날도 남편은 10시가 넘어서야 약국의 셔터를 내리고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목에 채워진 와이셔츠의 맨 윗 단추를 열면서 남편은 고개를 두세 차례 흔들었다. 무엇으로부터 겨우 놓여난 것 같은 몸짓이었다. 남편은 둥근 올가미 같은 넥타이를 머리 위로 벗어 던졌다. 남편은 자신이 벗어던진 넥타이에 스스로 목을 맬 수도 있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자신의 존재가 남편이 아침마다 지겨워하면서도 목까지 채워 올린 와이셔츠의 맨 위 단추, '조이는 게 싫어' 하면서도 매일 아침 목에 매던 넥타이 같은 존재인 것만 같았다.

여자가 남편의 옷을 옷장에 걸고 있는데 남편이 침대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상가 건물 말이야. 아무래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애."

여자가 사는 아파트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사거리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흉측한 철골만으로 6개월이 넘게 방치된 건물이 있었다. 분양받은 상가는 그 건물 1층 가운데 노른자위였다. 7년 전 화재가 있고난 이후부터 남편이 여자를 피해 도피처로 삼은 약국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 번 돈으로 분양받은 상가였다.

"원금은 못 받아도 인수한 회사에서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지 않을까?"

여자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소· 한?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약국에 쳐 박혀서 바카스 한 병 팔려고 오다가다 들리는 동네사람들 시덥잖은 말장단 맞춰주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지 당신은 모르지. 그래, 뭘 알겠어. 당신은 힘들면 정신줄 놓고 병원에 가면 되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내 꼴만 우스운 거야."

여자는 분노로 인해 두 볼을 부르르 떠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었다. 여자는 남편이 더 힘껏 자기를 물어뜯어 놓기를 바랐다. 갈기갈기 찢어 준다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았다.

갈대밭의 남자는 밤새도록 울부짖을 것 같았다. 집으로 걸어갈 때까지 여자의 귓전에서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여자는 그 날, 습관처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해 냈다. 1시가 넘었는데도 아파트 앞에는 빈 택시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여자는 택시를 타고 하상주차장까지 가자고 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퍼붓는 듯이 비가 내리는데 웬 하상주차장이냐고 머리가 희끗한 기사아저씨가 백미러로 여자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전 하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을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집으로 걸어 왔나 봐요. 평소에 걸어서 산책가곤 했거든요."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왜 하필이면 이 궂은날 밤늦게 거길 가야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다. 빗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차 앞에 여자를 내려준 기사아저씨가 친절하게도 헤드라이트를 켠 채 여자가 차에 오르는 것을 기다려주었다.

"그새 서방질에 보따리를 싸불었담서?"
"그 인물이 보통 인물이요"
"뭔 굿판 벌어졌다요? 다 가씨요 가."

하상주차장을 벗어나자 여자는 딱히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도 없이 톨게이트 쪽으로 차를 몰았지만 막상 목적지를 정하려니 갈 곳이 없었다. 여자는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아들고 오른쪽과 왼쪽 길 사이에서 망설였다. 여자는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다. 고향을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자정이 넘은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서 윈도우 브러시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서두를 건 없었다.

승용차 한 대가 빗속에서 속력을 내며 앞서갔다. 여자는 멀리서나마 앞 선 차의 불빛을 보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내 승용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맞은편 차도에도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었다. 여자가 속력을 더욱 늦추며 가는데 산더미 같은 짐을 적재한 화물차 한 대가 여자의 차를 추월했다. 여자는 화물차를 바짝 따라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물차는 여자의 길잡이가 돼주었다.

여자가 일단 쉬어가기로 작정했던 여산휴게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는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화물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더니 갓길에 정차를 했다. 비를 이길 수 없었거나 졸음을 이길 수 없었나보다. 여자는 갑자기 달려드는 어둠을 맞닥뜨리며 당황했다. 여자는 속도를 줄였다. 가끔씩 여자의 차를 추월해가는 차의 꽁무니를 따라갔다. 여자가 차의 속력을 내지 못해서인지 앞 선 차를 놓치곤 했다. 앞 차의 꽁무니에 달린 미등이 눈을 부릅뜬 짐승처럼 여자를 노려보기도 했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 차는 속력을 내더니 어느새 여자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결국 여자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갈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숙이 아부지 싸우디 간지가 일 년도 안 되얏는디 그 새 서방질에 눈멀어서 보따리를 싸불었담서?"

"그 인물이 보통 인물이요. 노가다판에서 손탈까봐 일부러 정숙이 아부지 혼자 현장으로 떠돌다가 장사 밑천이나 모아서 마누라랑 살 것다고 싸우디로 갔다는디."

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아줌마들이 여자를 향해 쯧쯧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뭔 굿판 벌어졌다요? 다 가씨요 가."

큰아버지가 대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메, 저 성질머리 허고는."

여자들이 멈칫 물러섰다.

"저 집안도 말쪼여. 저 사람은 월남 갔다가 고엽젠가 뭔가 땜에 고자가 되야 불었담서?"

여자들이 돌아서며 속닥거렸다.

"저 사람이 고잔지는 어떻게 알어? 집이가 봤어?"

"꼭 봐야 알간. 정 다방 미쓰 김이 그러대. 그 짓도 제대로 못 허믄서 만날 추근댄다고."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멀어져갔다. 여자가 동생의 손을 잡고 큰집을 향하는 리어카 뒤를 따르는데 텅 빈 들판으로부터 매운바람이 불어왔다. 여자가 아홉 살 때 일이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동생은 마당에서 사방치기를 하며 여자와 놀다가도 대청 마루에 걸린 괘종시계가 다섯 번을 치면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TV를 보기 위해서였다.

"어쯔케 저 시계소리는 귀신 같이 알아듣는지 몰러."

다란 엉덩이를 씰룩거리면서 안방으로 뛰어가는 동생을 보면서 큰어머니는 웃곤 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도 동생은 TV 앞을 떠날 줄 몰랐다. 9시 저녁 뉴스를 하는 시간이 동생이 자는 시간이었다. 동생은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 앉아 있는 큰어머니나 큰아버지 무릎위로 커다란 엉덩이를 쑤욱 들이밀며 품으로 파고들곤 했다.

"워메, 등치는 말 만헌 것이 어디로 파고든다냐."

어머니는 슬그머니 동생을 밀어냈다. 잠이 오면 어머니 품을 파고들던 버릇 때문이었다. 큰아버지는 차마 동생을 밀어내지 못하고 '허 참' 하면서 어색하게 동생을 안았다.

"참말로 별일이구만. 동네 애기들은 당신만 보믄 다 도망가는디 정민이는 그래도 핏줄이다고 고로케 앵기는 갑소."

큰어머니는 동생을 신통해했다. 언제부터인가 큰아버지가 먼저 동생을 불러 무릎에 앉혔다.

"워메, 우리 정민이 궁둥이 실팍한 것 좀 보소. 지금 시집보내도 되겄네."

가끔 큰아버지가 동생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놀려대곤 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큰어머니가 순영이네 집에 마실 나간 밤이었다. 그날도 정민이는 큰 아버지의 무릎위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9시 뉴스가 시작되자 여자는 건넌방에 가기 위해 여동생을 부르다가 큰아버지가 동생의 사타구니 사이에 얹었던 손을 재빨리 무릎 쪽으로 치우는 것을 보았다. 큰아버지는 흠흠, 헛기침을 하면서 동생을 안아서 건너 방으로 옮겨 뉘였다.

다음날 여자는 잠에서 깬 동생에게 일부러 험악한 얼굴로 종주먹을 들이대며 말했다.

"너, 큰아버지 무릎에 앉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동생은 여전히 큰 아버지 무릎위에 앉았다. 여자는 동화책을 읽어주겠다며 동생이 잠들기 전에 억지로 끌어내 건넌방으로 데려오곤 했다. 잠투정 하는 동생을 달래기 위해 여자는 얄팍한 무릎을 동생에게 내주었다. 동생은 통실하게 살찐 몸을 여자에게 맡겼다.

〈21면으로 계속〉